

도입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의 귀한 종임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과 걱정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예수님은 누구신가 Who Is He in Yonder Stall?

1.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품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놓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2.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3.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4.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1. "Who," you ask me, "is my Je-sus?" Mourn-ers' Com-fort-er is He. He is plen-ty for the need-y Height for all of low de-gree, He's the free-dom of the cap-tive, And our joy e-ter-nal-ly.
2. Who is Je-sus Strength for Weak-ness; Light and vi-sion for the blind; He is heal-ing for the ail-ing, Health of bod-y, soul and mind; For the dead He's Res-ur-rec-tion, And in Him our life we find.
3. Who is Je-sus He's the An-swer When un-cer-tain-ties in-crease; Life for death and Med-i-a-tor For the sin-ner's sure re-lease; Sure sal-va-tion for the per-ished, And our ev-er-last-ing peace.
4. Who is Je-sus He's the Head of Us His Church; our Lord and Friend. He's the Sav-ior of all na-tions King to whom all kings shall bend; Lord of Judg-ment for all peo-ples, And our glo-ry with-out end.

본문 로마서 1:1-4

- 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 2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 3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 4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Romans 1:1-4

1 Paul, a servant of Christ Jesus, called to be an apostle, set apart for the gospel of God, 2 which he promised beforehand through his prophets in the holy Scriptures, 3 concerning his Son, who was descended from David according to the flesh 4 and was declared to be the Son of God in power according to the Spirit of holiness by his resurrection from the dead, Jesus Christ our Lord.

설교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노예란 자유의 상실, 정체성의 상실, 그리고 가치의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누구도 스스로를 노예라 부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호칭을 선택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속박이 아니라 참된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하고, 자신의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것은 자아를 잃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길입니다. 바울은 참된 자유가 자율성이나 자기결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주인께 속하는 데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정체성과 사명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곧바로 은혜와 연결됩니다. 은혜는 흔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 정의는 옳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사도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사도로 세움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받은 **사도직의 은혜**를 의미할 수도 있고, 동시에 모든 성도가 공통으로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와, 바울에게 특별히 주어진 사도적 부르심을 함께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분명한 것은, 은혜는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만족을 위한 선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지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순종을 포함하며, 바로 그 순종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십니다.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깊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 줍니다. 은혜는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우리를 자기중심적인 자유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순종으로 이끌며, 그곳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좋은 날들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Paul begins Romans by introducing himself as a servant of Christ Jesus. Slavery was associated with the loss of freedom, loss of identity, and loss of worth. No one aspired to be called a slave. Yet Paul deliberately chooses this title. Why? Because Paul understood something the world does not: to be a slave of Jesus is not bondage, but true freedom. To belong fully to Christ and to surrender one's life to Him is not to lose oneself, but to be restored to who we were created to be. Paul is teaching that true freedom is not found in autonomy or self-determination, but in belonging to the right Master. Paul then speaks of being called to be an apostle. His identity and mission were not self-chosen; they were given by God. And this calling, Paul explains, flows directly from grace. Grace is often defined as receiving something we do not deserve. That definition is true—but in this passage, grace carries an even deeper meaning. Here, grace is closely connected to apostleship. It may refer to “the grace of apostleship”—God’s unearned favor that appointed and empowered Paul for his mission. It may also include the grace that enables Paul to live the Christian life, a grace shared with all believers, alongside the unique calling of apostleship. Either way, grace is not regarded as a gift given for personal or private enjoyment. Grace is given in accordance with God’s will and for the purpose of furthering God’s work. Being a servant of God involves obedience, and it is through obedience that we recognize God’s grace. God uses His people to serve His will and accomplish His purposes. This, too, is by the grace of God. God’s grace runs deeply through our lives, in every situation. Paul’s life reminds us that grace is not about comfort; it is about calling. And calling always leads us—not to self-centered freedom—but to joyful surrender in Christ, where true freedom is finally found. We confess that everything has been His grace, not just the seemingly good days. At the end of the day, we have received the ultimate grace to be His children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1. 요즘 나의 생각과 시간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주인'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 그분께 삶을 맡길 때, 어떤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느낄 수 있을까요?
What is the "master" that currently occupies most of your thoughts and time? When we become servants of Jesus and entrust our lives to Him, what kind of inner peace and freedom do we experience?
2. 하나님이 우리 가족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나 재능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거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What are the special graces or talents that God has given to each member of our family? Let's talk about how these gifts can be used not just for our own satisfaction, but to help others and fulfill God's work.
3. 오늘 하루를 보내며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힘들었던 일조차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As you went through your day today, when was a moment you felt, "Ah, this was also God's grace"? Let us confess in faith that even the difficult moments were within God's good and sovereign plan.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자유는 주님 안에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 가족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명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혜를 나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누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ord God, through Your Word today, we have learned that true freedom is found in You. May our family live not as slaves to the world, but as people called by Your grace with a holy mission. Help us not to use the talents and grace You've given us only for ourselves, but to share them for Your glory. Throughout the coming week, let us confess that everything is by Your grace and live in victory.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we pray. Am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1. 우리 삶의 결정권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주어지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May we enjoy the true freedom and peace that come when we completely surrender the decision-making power of our lives to You, Lord.
2. 우리에게 주신 건강, 재능,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Help us to use the health, talents, and time You have given us for the mission of fulfilling Your divine will.
3. 우리 가족이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삶에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매순간 감사하며 고백하게 하소서.
Help our family to look to You even when we face difficult situations, and let us confess with gratitude in every moment that everything in our lives has been by Your grace.